

## ■ 산업간 지식 흐름 분석의 현황과 시사점

- (분석의 현황) 산업연관표, 산업내 연구인력의 전공분야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업간 지식 흐름을 추정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짐
  - 기존 연구 결과들로부터 여러 흐름 경로의 구성, 지식 흐름에서 각 산업의 역할, 지식 흐름 네트워크의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음
- (흐름 경로의 구성) 체화 지식의 흐름은 중간재를 매개로 한 부분과 자본재를 매개로 한 부분으로 구분됨
  - 우리 나라의 경우 체화 지식의 흐름 중 자본재를 통한 지식 흐름의 비중이 25.7%로 나타나 선진국의 33~42%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지님
- (지식 흐름에서의 산업별 역할) 지식 흐름에서의 역할에 따라 각 산업을 지식 흡수 부문과 지식 방출 부문으로 나눌 수 있음
  - 우리 나라는 제조업 중에서 가전, 반도체, 자동차가 지식 흡수가 많고 화학 산업이 지식 방출이 많음
- (지식 흐름의 네트워크 구조) 지식 흐름 관계가 많은 산업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가, 아니면 소수의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가도 지식 흐름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함
  - 우리 나라의 지식 흐름 구조는 몇몇 산업에 관계가 집중된 불균등한 성격을 지님
- (시사점) 지식 흐름의 특성에 기초한 지식 기반 강화 전략이 필요함
  - 자본재에 체화된 지식은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지식 흐름 원활화를 위해 취약한 자본재 부문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
  - 지식 흐름에서의 역할에 따라 산업마다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함. 예를 들어 지식 흡수 부문은 지식 유입을 촉진시키는 외부 정보네트워크 지원, 지식 방출 부문은 전용 기술 보다는 공유기술의 전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
  - 기존 흐름 관계의 원활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 흐름 관계의 창출을 통해 지식 흐름이 전체 산업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도록 해야 함

## 산업간 지식 흐름 분석의 현황과 시사점

### □ 지식 흐름 분석의 중요성

- 경제의 지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간 지식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함
  - 지식은 개별 산업 주체의 고립된 연구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됨
  - 특히 지식의 복합성의 증대로 다양한 산업간 지식의 흡수와 확산이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그 관계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음
  - 따라서 산업간 지식 흐름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기초한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함
  - 이 글에서는 산업간 지식 흐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그들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

### □ 지식 흐름의 측정 방법

- 산업간 지식 흐름은 ‘체화 지식’(embodied knowledge)의 흐름과 ‘비체화 지식’(disembodied knowledge)의 흐름으로 나눌 수 있음
  - 체화 지식의 흐름은 중간재나 자본재의 공급을 통해 지식이 이전되는 것
  - 비체화 지식의 흐름은 연구 인력의 이동이나 특허 자료의 참조 등과 같이 중간 재나 자본재의 이동을 통하지 않고 지식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
- 체화 지식의 흐름은 산업연관표상에 나타난 중간재나 자본재의 흐름 정도에 각 산업의 지식 크기의 대리 변수를 곱하여 측정함
  - 중간재를 통한 체화 지식의 흐름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

$$\begin{aligned} & i \text{ 산업에서 } j \text{ 산업으로 중간재를 통한 체화 지식의 흐름량} \\ & = (\text{산업연관표상의 } i \text{ 산업에서 } j \text{ 산업으로의 투입계수 혹은 생산유발계수}) \\ & \quad \times (i \text{ 산업 지식 크기의 대리 변수}) \end{aligned}$$

- 자본재를 통한 체화 지식 흐름량은 투입계수표나 생산유발계수표 대신 고정자본

형성표 이용하여 측정함

- 각 산업의 지식의 크기는 R&D 지출액이나 R&D 스톡, R&D 인력 등을 대리 변수로 하여 측정함

< 산업간 지식 흐름의 측정 방법에 따른 기존 연구의 분류 >

지식 크기의 대리변수	체화 지식		비체화 지식		파급 효과
	중간재	자본재	기술 근접성	기술의 투입-산출표	
R&D 지출액	홍순기 외(1994) / Goto 외(1989) / Papaconstantinou 외(1996)	홍순기 외(1994) / Papaconstantinou 외(1996)	Goto 외(1989)		장진규 외(1994)
R&D 스톡	이희경 외(1996)		이희경 외(1996)		
R&D 인력	김문수(1999) / Leoncini 외(1996)		김문수(1999)		
특허의 수				Verspagen 외(1999)	

주: 검토 대상이 된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음

- 홍순기, 홍사균(1994), “산업간 기술흐름 구조와 연구개발투자의 파급효과분석”, 「과학기술정책」, 제6권, 제1호,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.
- 장진규, 김기국(1994), “연구개발투자의 산업생산성 증대효과”, 「과학기술정책동향」, 1994년 2월호,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.
- 이희경, 김정우(1996), “연구개발투자의 산업간 파급효과: 한국제조업에 대한 실증연구”, 「기술혁신연구」, 제4권, 제1호.
- 김문수(1999), “한국 제조업의 지식연계구조 특성과 기술 변화”, 서울대 산업공학과 박사학위논문.
- Goto, A. and K. Suzuki, “R&D Capital, Rate of Return on R&D Investment and Spillover of R&D in Japanese Manufacturing Industries”, *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*, Vol.LXXI, No.4, pp. 555~564.
- Papaconstantinou, G., N. Sakurai and A. Wyckoff(1996), “Embodied Technology Diffusion: An Empirical Analysis for 10 OECD Countries,” STI Working Papers, OECD.
- Leoncini, R., M. A. Maggioni and S. Monstresor(1996), “Intersectoral Innovation Flows and National Technological Systems: Network Analysis for Comparing Italy and Germany,” *Research Policy* 25, pp. 415~430.
- Verspagen, B. and I. De Loo(1999), “Technology Spillover between Sectors and over Time,” *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* 60, pp. 215~235.

---

## 기획 논단

---

- 비체화 지식의 흐름은 산업간 기술 균접성을 산출하거나 기술의 투입-산출표를 작성하여 측정함
  - 산업간 기술 균접성이란 두 산업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유사한가를 나타내는 것으로, R&D 인력의 전공 분포가 비슷한가 아닌가, 혹은 R&D 지출의 대상 분야가 비슷한가 아닌가 등으로 측정함
  - 기술의 투입-산출표는 행(行)을 이용 산업, 열(列)을 발명 산업으로 하여 산업간 특허의 참조 빈도를 행렬로 표시한 것인데, 특허 자료에 나타나 있는 다른 특허 참조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함
- 한편 산업별 생산성과 산업별 R&D 지출간의 회귀 분석을 통해 산업간 지식의 단순 파급 효과를 파악할 수도 있음
  - 각 산업마다 그 산업의 생산성을 종속변수로 놓고, 모든 산업에서의 R&D 지출액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후 유의성이 존재하는 변수들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산업간 지식 파급 효과의 유무를 파악함

### □ 체화 지식의 내용 분석

- 우리 나라는 체화 지식 중 자본재에 체화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음
  - 체화 지식은 중간재에 체화된 것과 자본재에 체화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, 자본재에 체화된 지식은 한 번 공급이 이루어지면 장시간동안 그 영향을 미치므로 중간재에 체화된 지식보다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
  - R&D 지출로 측정한 체화 지식의 크기를 보면, 선진국들은 자본재에 체화된 것의 비중이 33~42%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(Papaconstantinou 외, 1996), 우리 나라는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.7%에 그쳐 자본재를 통한 지식 흐름이 상대적으로 취약함(홍순기 외, 1994)

#### < 체화 지식 중 자본재 체화 지식의 비중 비교 >

(단위: %)

미국	일본	독일	프랑스	영국	한국
41.7	39.8	34.5	32.9	32.5	25.7

자료: Papaconstantinou 외(1996)와 홍순기 외(1994)에 기초하여 작성

- (시사점) 국내 산업간 지식 흐름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본재를 통한 지식 흐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
  - 파급효과면에서 자본재를 통한 체화 지식 흐름이 더 중요한 반면, 우리 나라는 자본재를 통한 지식 흐름이 취약함
  - 자본재 부문을 적극 육성하고 이 부문에의 R&D 투자를 늘려 자본재에 체화된 지식 흐름의 양을 크게 하는 것이 필요함

#### □ 지식 흡수 부문과 지식 방출 부문 분석

- 우리 나라 제조업에서는 가전, 반도체, 자동차가 지식 흡수가 많음
  - OECD 10개국에 대해 산업별 체화 지식 흡수량을 살펴보면, 제조업 중 체화 지식의 흡수가 많은 산업은 일본과 독일에서는 자동차 산업,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는 화학 산업,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항공산업이 중요한 지식 흡수 산업으로 나타남(Papaconstantinou 외, 1996)
  - 체화 지식만이 아니라 비체화 지식까지 고려했을 경우, 우리 나라에서 양자 모두 지식 흡수량이 많은 산업은 가전, 반도체, 자동차 산업임(김문수, 1999)
- 우리 나라 제조업에서는 화학 산업이 지식 방출이 많음
  - OECD 10개국 중 6개국에서 체화 지식의 방출이 가장 많은 부문은 정보 관련 부문(컴퓨터, 통신기기, 반도체, 전기 기계, 정밀 기계)으로 나타남(Papaconstantinou 외, 1996)
  - 우리나라에서 체화 지식과 비체화 지식 모두 방출이 많은 산업은 유기·무기 화학, 산업용 전기기기, 정밀기기 산업임(김문수, 1999)

#### < 지식 흡수량에 따른 우리나라 제조업의 분류 >

		체화 지식	
		적음	많음
비 체 화 지 식	적 음	의약품, 나무·목재, 염료·도료, 비료·농약, 세정제·화장품	-
	많 음	정밀기기, 공작기계, 서비스·사무용기계, 특수산업용기계	가전, 반도체, 자동차, 조립금속, 기타산업기계

자료: 김문수(1999)에 기초하여 작성

## 기획 논단

### < 지식 방출량에 따른 우리나라 제조업의 분류 >

체화 지식			
적음		많음	
비 체 화 지 식	적 음	비료 · 농약, 종이 · 인쇄, 도자기 · 토기	고무제품, 유리제품
	많 음	반도체, 특수산업용기계, 섬유,	유기 · 무기화학, 산업용 전기기기, 정밀기기

자료: 김문수(1999)에 기초하여 작성

- (시사점)지식 흐름에서 산업별 역할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함

- 연구개발의 파급효과가 큰 지식 방출 부문의 경우 특정 분야에만 활용될 수 있는 전용 기술에 대한 지원 보다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유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
- 지식을 많이 흡수하는 지식 흡수 부문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, 외부와의 정보 네트워크 구축이나 지식 교류의 활성화 등과 같이 지식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하부구조적 접근 방안을 취해야 함

### □ 생산성에 대한 파급 효과 분석

- 특정 산업에서의 지식의 증대(R&D 투자)는 그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생산성도 향상시킴
  - 지식의 증대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남
  - 특정 산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은 그 산업 자체의 지식 증대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의 지식 증대 활동에도 기인함
  - 역으로 특정 산업에서의 지식 증대 활동은 그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식의 흐름을 통해 다른 산업의 생산성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

- 각 산업의 생산성 증대는 자체적인 지식 증대 활동보다는 타 산업에서의 지식 증대 활동에 의한 간접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
  - 각 산업의 생산성 증가를 자체적 노력을 통한 지식의 증가량(R&D 지출액 등)과 타 산업에서 유입된 지식의 증가량을 종속 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을 수행함
  - 대부분의 회귀 분석 결과에서 자체 R&D 활동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외부 R&D 활동에 의한 간접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

#### <R&D 투자의 직·간접 효과 분석 결과 비교>

연구자	자체 R&D의 한계수익률(%)	외부 R&D의 한계수익률(%)
Terleckyi(1991, 미국)	28(29)	48(78)
Scherer(1982, 미국)	29	74
Griliches 외(1984, 미국)	29	51
後陵 외(1987, 일본)	53	136
Goto 외(1989, 일본)	26	80
Bernstein 외(1988, 캐나다)	9~27	10~160
홍순기 외(1991, 한국)	126	668
이희경 외(1996, 한국)	134	158

자료: 홍순기 외(1991)에 기초하여 보완

- 우리 나라에서 전자, 전기, 정밀기기 부문이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(장진규 외, 1994)
  - 한 산업의 R&D 투자가 해당 산업의 생산비 감소에 미치는 영향(사적 수익률)과 다른 모든 산업의 생산비 감소에 미치는 것까지 합한 사회전체적인 영향(사회적 수익률)을 각각 회귀 분석을 통해 추정함
  - 그 결과 우리 나라에서 R&D 투자의 사적 수익률 면에서는 산업용 및 기타 화학 산업이 가장 높았지만 사회적 수익률 면에서는 전기, 전자, 정밀 기기 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

### <국내 산업별 R&D 투자의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 비교>

산업군	사적 수익률	사회적 수익률
음식료, 목재, 종이 · 인쇄	0.0223	0.0223
섬유, 기타 제조업	0.0477	0.0477
비금속 광물, 제1차금속	0.0587	0.0587
산업용 화학, 기타 화학	0.4365	0.9429
고무 제품, 플라스틱 제품	0.0394	0.7096
석유 정제, 석유 · 석탄 제품	0.2298	0.2399
수송기기, 일반기계, 조립급속	0.2939	2.0388
전기, 전자, 정밀기기	0.2960	2.8042

자료: 장진규 외(1994)

- (시사점)R&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특히 파급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지원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
  - R&D 투자 등 지식 중대 활동은 외부에의 파급 효과가 크므로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되고 정부가 개입하여 확대를 촉진해야 함
  - R&D 활동의 사회 전체적인 파급 효과가 큰 부문에 R&D 재원이 더 많이 배분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

### □ 지식 흐름의 네트워크성 측정

- 지식 흐름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폭의 측면에서는 전기 · 전자, 화학, 정밀 기계 부문이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침
  - 지식의 원활한 유통과 확산을 위해서는 지식 흐름의 크기만이 아니라 영향을 주고 받는 산업의 수, 즉 흐름의 폭도 중요함
  - R&D 지출과 생산성 증대간의 영향 관계 추정에서 전기 · 전자, 정밀기기 산업군은 다른 7개 제조업 산업군 중 5개 산업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영향을 미치는 폭이 가장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음(장진규 외, 1994)
  - 체화 지식의 흐름에서는 유기 · 무기화학, 유리 제품, 고무 제품 등이, 비체화 지식의 흐름에서는 유기 · 무기화학, 반도체, 특수 산업용 기계 등이 가장 많은 수의 산업들에 지식을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남(김문수, 1999)

- 우리 나라 지식 흐름 구조는 전체적으로 몇몇 산업군에 관계가 집중되는 집중화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음(김문수, 1999)
  - 체화 지식의 흐름 구조에서 방출 부문의 경우 몇 개의 중심 산업군에서 지식이 확산되는 다중심적 구조를 이루고 있고, 흡수 부문의 경우는 전통산업군과 성장 산업군으로 구분되어 지식의 흡수가 이루어지는 이중적 구조를 띠고 있음
  - 비체화 지식의 흐름 구조에서는 소위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이루어지고 주변부 산업에서 이를 흡수 활용하는 양극화된 구조를 띠고 있음
- 독일은 지식 흐름 관계가 전체 산업에 골고루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, 긴밀하고도 분산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음(Leoncini 외, 1996)
  - 독일과 이탈리아간에 체화 지식의 흐름에 기초한 네트워크 밀도(수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산업간 연결의 수 대비 특정값 이상의 지식 흐름을 보이는 산업간 연결의 수)를 측정 비교한 결과 독일이 모든 경우에서 높게 나타남
  - 네트워크의 중심화 지수(가장 많은 산업 연관 관계를 가진 산업이 전체 연관 관계의 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)에서도 이탈리아보다 독일이 높게 나타남
- (시사점)지식 흐름의 양이 늘어나도록 기존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 관계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연관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노력해야 함
  - 우리는 불균등하게 집중된 네트워크 구조를 완화하여 광범위하고 균등한 연관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
  -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재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내 산업 연관의 확대를 이루는 것이 필요함
  - 또한 전공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인력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

■ 정리: 김창욱 연구위원 cwkim@hri.co.kr 031-724-4044